

Missionary's Letter

쁘레야 짜어 쎬끄더이쓰롤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살롬,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의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입니다. 지난 동역 서신 이후의 소식들을 담아 감사한 마음으로 동역자님께 나눕니다.

가르치는 사역 Teaching

지난 5월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중 두명만이 기독교교 나머지는 불교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매번 학생들을 새롭게 만날 때면, 이 중에 붙여주시는 영혼이 누구일까 하는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욱이 지금 저희가 만나는 학생들은, 30 여년전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총을 들었거나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이들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은혜로 재건되어야 할 캄보디아 일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강의실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시간강사들의 교습태도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의도에서입니다. 또 몇주 전에는 학교내 제 사무실에 누군가가 자물쇠를 걸었었습니다. 학생을 불러 성경공부를 하고, 또 소중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던 곳입니다. 다행히 2주정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보다 더욱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시작된 세종학당이 1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숙함과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 결실도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동자들은 대개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로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업, 연령, 배경 모두 다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벅칩니다. 취업이 되어 한국 공장으로 간 청년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수업 마지막 날 감사하다며 박카스를 가져온 청년에게 전도지를 다시 쥐어주고, 수료식때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선물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한국말로 기도문을 적어 외우게도 합니다. 운영과 규모면에서도 그동안 성장했습니다. 처음의 노동자반으로 시작한 이후, 인근 초등학교를 빌려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게 되고, NPIC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반도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세종학당의 본 기능에도 충실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NPIC 예배 Worship in campus

수요예배 소식입니다. 지난 6 월말 해프이어(Half Year)를 돌아하며, 이번달 부터의 하반기 사역을 위한 두가지 기도제목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배와 기도의 부흥이요, 둘째는 협력선교입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감사함도 익숙함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가 시작되고 정착되었다면, 한걸음 나아가 성숙과 능력의 예배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저희도, 다른 분들도 모두 영적 도약이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두번째 협력선교의 부분입니다. 모두는 NPIC 라는 공동의 어장에 보냄받은 어부वाद 같습니다. 개인의 낚싯대를 놓고, 큰 그물을 함께 잡을 때, 때를 건져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연합의 이슈는 선교사들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분명 이전과 다른 모습의 공동체와 사역이 될 것이라 또한 확신습니다.



우리들의 약속 1 순위는 예배입니다

교회 사역 Church & Discipleship

지난 2 월부터 시작된 예배와 교회사역도 5 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NPIC 학생과 시작한 예배에, 동네의 중학생들이 함께 하더니, 최근에는 시청공무원이자 정선교사의 과외 선생님인 생학, 그리고 인근 학원에서 일하는 청년 레약과 그가 인도한 친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생학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전 일찍온 그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고 낮지 않고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기도 받고 싶어 왔다고 하였습니다. 미리 온 몇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후 보냈습니다. 생학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낮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학은 화요일부터 다시 일을 나가게 되었고, 이후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레약(뒤)이 안드레와 같이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몹시 아팠던 그날, 중대한 발걸음을 했던 생학 (사실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

지난 6월 마지막 주 예배에는 지난 동역서신에서 소식을 나눴던 오씨를 초대하여 간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이후 프놈펜 이주하여 지냈던 것, 그리고 작년 가을의 형의 죽음 등, 많은 눈물과 원망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한가지를 붙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남겨진 형수와 조카들의 소식입니다. 형수는 동네 시장에서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아이들도 다시 학교에 보내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특별한 감사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 할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또 한 사람 티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티아는 주언이 학교 같은 반 캄보디아 친구의 엄마입니다. 조은영 선교사가 작년 10월부터 집으로 초대해 영어도 배우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남편을 두어 주로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저희가 만난 캄보디아 사람중에서 마음밭이 좋고 배풀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4영리를 통해 복음을 한번 접했으나,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저희는 티아가 캄보디아의 루디아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티아, 감춰진 루디아아길 바라며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기도제목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선교사라 하더라도 캄보디아 사람의 성품과 습성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실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일 (7.8)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른 교회 설교를 하게 되었고, 지난 주 한 명의 제자를 대동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 할 때, 다른 두명이 자원해서 같이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3명을 데리고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기뻐했습니다. 따라나선 두 명도 예비 리더로 품고 기도하며, 심방도 데리고 가곤 했던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찾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의미와 비전을 나누고 예비리더로 초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주간의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선교사를 사용하여 결국 현지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스승이면서 동시에 좋은 안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자원하는 이들로 리더훈련이 시작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대해주세요. 이들의 이름은 찌보완, 삐싸이, 피롬입니다.



예비리더들: 피롬(좌), 삐싸이, 찌보완

곰작마! 록끄루가 뜬다 © Caring & Sharing

‘록끄루’는 선생님 또는 목사님의 뜻으로 제자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제자들과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심방하고, 일터로 찾아가고, 또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하고, 모두 저희가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록끄루, 캄보디아에 언제까지 계세요?’ 입니다. 만남도 많고 헤어짐도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면 저희는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우리는 너가 졸업하고 직장 잡는 거 볼꺼야, 아니 결혼하여 아이 낳는 것도 보고 싶어’.



함께여서 더 재미있는 심방



일터로 찾아가고



가족들의 애경사도 빠짐없이 (약손식)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한 명 한 명이 이 땅 곳곳에 흩어져 또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을 기도합니다. (그중에 어떤이는 이웃나라로도 가면 좋겠습니다 ☺)

생활과 가족 Life & Family

최근들어 이곳에 사건 사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의 선배 선교사님의 아드님의 부르심 뿐 아니라, 저희 교회 제자의 친구 한명도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또한 조은영 선교사의 캄보디아어 선생님도 사고가 있었으며, 저희 가정과 가까운 다른 선교사님도 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 내 새로운 질병(Unknown disease)이 돌고 있습니다. 0 세부터 7 세의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 새로운 병은 심한 고열과 함께 손발에 물집과 가려움, 입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나타나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61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당국은 물론, 이미 미국 CNN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으며, 국제보건기구(WHO)에서도 팀을 파견해 프놈펜에서 조사 및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킬링필드는 물론, 지난 2010 년 11 월에 있었던 수백명의 압사 사건^(동역서신 3) 등을 생각할 때 캄보디아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더욱 간구하게 됩니다. 생명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유 주언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두 아이 모두 풍토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먼저 주언이가 다리에 뭐가 났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이후 진물과 상처로 번져가며, 온유까지 옮겨서 팔다리 얼굴로 전이되어 갔습니다. 수두와 비슷하게 보이는 현지 피부병이었습니다. 비슷한 피부병이 NPIC 의 다른 두 선교사님 가정에도 생겼었습니다. 한분은 한달 반만에, 또 한분은 3 달이 지나도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부병 내복약은 성분이 강해 장기 투여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습니다. 감사히 온유와 주언이는 지금 확산되는 것을 멈추고, 있던 것이 수그러들며 많이 나아졌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집에서 완전 상전입니다. 앉아서 주문하고, 신나게 노는 분위기입니다 ☺



상전 아닌 시절의 온유 주언
(but 까불기는 여전합니다 ☺)

사랑하는 동역자님, 늘 기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향하신 귀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루 하루의 삶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질 수 있기를,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또한 그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께 동일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깨어 주의 뜻을 좇으며, 날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선교사의 삶(영성) 되기를
2.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며, 맡겨주신 이들을(학교, 교회) 주께로 잘 이끌 수 있기를
3. [교회] 리더훈련(core group)이 시작되고 이후 소그룹 사역으로 이어지길
4. 온유 주언이의 건강(피부병)과, 성령의 아이들로 잘 자라나길

2012 년 7 월 12 일
정지웅, 조은영, 온유, 주언 드림

후원안내 미국에서: Bank of America. Account: 0039 3599 2109 Routing: 026009593

* Check: Jiwoong Chung: 11309 Megan Dr. Fairfax, VA 22030

한국에서: 국민은행 270102-04-077618 (정지웅)

총무: 강재훈 (한국) 010-8280-4508 Jaekang04@yahoo.com 김연왕(미주) 571-232-2271 jamesywkim79@gmail.com